

세무회계저널
제11권 제1호 2010년 3월 pp.137~166
한국세무학회

조세회피기회, 윤리환경, 납세도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정재을*

<요 약>

자진신고납부제도 하에서는 납세자들에 의한 조세회피가 많고, 또한 조세회피의 정도는 세원 또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모형(대리인이론)이 많이 이용되었다. 경제적모형에서는 대리인변수(회피기회)를 사용하여 조세회피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Noreen(1988)이 대리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리인변수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윤리적 변수를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로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윤리변수가 이용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리인변수에다 윤리변수인 윤리환경과 납세자의 개인적 납세윤리의식(납세도의)을 추가하여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행동을 예측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적 윤리의식은 납세자가 처한 경제상황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납세자의 조세회피기회에 영향을 받는다는 최근의 연구결과와 윤리환경 역시 개인적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리인변수와 윤리환경이 납세도의를 통해 조세회피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사업자 납세자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그들로부터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대리인변수, 윤리환경, 납세도의는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리인변수 및 윤리환경에 대한 납세도의의 매개변수 효과가 일부 있음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당국의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고,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행동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조세회피, 회피기회, 윤리환경, 납세도의

* 신라대학교 상경대학 세무회계학과 부교수, jejung@silla.ac.kr, 051-999-5715

I. 서 론

우리나라의 국세는 기본적으로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세자들이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이러한 조세회피(tax evasion)는 국가경제적 측면이나 사회공평성 측면에서 축소될 필요가 있다. 조세회피는 세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소위 ‘유리알 지갑’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세 보다는 세원노출이 완전하지 않은(회피기회가 많은) 사업소득세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세원에 따라 조세회피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적 모형(대리인이론)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이해중심적(self-interest)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제적 모형은 조세회피기회를 조세회피 발각확률에 대한 대리변수로 간주하고 있는데, 납세자들은 자신의 조세회피가 발각되어 처벌받을 확률이 높을수록 조세회피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많은 실증적 연구들에서 회피기회(대리인변수)와 조세회피 간에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Antonides and Robben 1995 ; Carnes and Englebrecht 1995 ; Smith 1990).

경제적 모형에 대한 비판 또는 수정은 Noreen(1988)에 의해 시작되었다. Noreen(1988)은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이해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윤리의식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대리인이론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무분야에서도 연구자들은 회피기회에 초점을 두는 경제적 모형은 조세회피를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사회적 기준(social norm)과 개인의 윤리신념(ethical belief)도 조세회피를 설명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Jackson and Milliron 1986 ; Alm et al. 1999 ; Wenzel 2005b).

조세회피에 대한 경제적 변수와 윤리변수의 영향을 조사하는 이전의 연구들은 한계점이 있었다. 즉, 일부의 연구들은 경제적 변수와 윤리변수가 독립적으로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Wenzel 2004). 이는 암묵적으로 경제적변수와 윤리변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관점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분석은 경제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조작·측정하고 윤리변수는 공변수로 취급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변수의 조세회피에 대한 영향은 윤리변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Wenzel 2004).

일부의 다소 다른 관점의 연구에 있어서는 경제적변수는 납세자가 조세회피가 아주 비윤리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사회적 규준이 조세회피를 부추길 때)에만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윤리변수가 여과기능(screening mechanism)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²⁾ 즉, 속이는 것 자체가

1)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소득세의 경우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실제 납부액 사이의 갭이 연간 \$3,450억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IRS, 2006).

2) 조세회피 의사결정이 아닌 프로젝트 의사결정상황이지만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준 연구는 Rutledge and

나쁘므로 조세회피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조세회피기회는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두 관점의 선행연구들은 관점들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윤리의식(윤리변수)은 납세자가 직면한 경제적 상황(경제적 변수)과 무관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Blanthorne and Kaplan(2008)은 납세자의 개인적 납세윤리의식(납세도의)은 납세자가 처한 경제 상황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납세자의 조세회피기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조세회피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이지만 개인의 윤리적 믿음은 개인적 이해(self-interest)에 영향을 받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들(Babcock et al. 1995 ; Tompson and Loewenstein 1992)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Blanthorne and Kaplan(2008)은 조세회피 행위로부터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회피기회가 높은 납세자들은 그렇지 못한 납세자들보다 조세회피를 덜 비윤리적인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Tompson and Loewenstein(1992)은 이러한 윤리의식에 대한 편의(bias)를 윤리에 대한 자기중심적 해석(egocentric interpretations)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선행연구들과 Blanthorne and Kaplan(2008)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적 변수(대리인변수)는 조세회피에 대한 직접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도의를 매개변수로 한 간접적 효과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윤리변수는 개인이 직면한 사회적 규준 등을 포함한 윤리환경과 자신의 개인적 윤리수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두 변수 모두 조세회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Wenzel 2005a), 윤리환경은 또한 개인적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윤리환경은 납세도의를 매개변수로 한 간접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리인변수(회피기회), 윤리환경, 납세도의를 조세회피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당국의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고, 납세자들의 행위분석을 위한 후속 연구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납세자를 통한 현장연구(field study) 방법에 의해 행해졌다. 현장연구는 외적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정책당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이론적 배경 및 가설도출,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연구결과 및 토론 그리고 요약 및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Karim(1999)을 들 수 있다. 그들은 대리인변수의 영향은 윤리수준이 높은 매니저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고, 윤리수준이 낮은 매니저들에게만 잘 나타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도출

1. 대리인변수의 영향

헌법에 국민이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국가와 납세자간에 계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리인이론에 따르면 이 계약관계를 주인-대리인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데, 특히 신고납부제도 하에서는 그 관계가 더 분명해진다. 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는 정부(주인)는 국가의 재정수요조달 및 공평과세의 목적을 위해 납세자(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상태이다. 대리인이론에 따르면 주인과 대리인은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이해(self-interest)에 의해서 동기부여된다고 가정한다(Baiman 1982, 1990 ; Eisenhardt 1989). 또한 주인의 이해는 조직의 전반적인 이해와 일치된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대리인의 이해는 조직의 이해와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리인의 이해가 조직(주인)의 이해와 갈등관계에 있을 때는 대리인은 설크(shirk)할 유인이 생긴다.³⁾

대리인이론은 설크할 유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설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가정한다. 대리인이론에서 설크 기회변수로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대리인에 의한 사전정보 이용가능성이다(Harrison and Harrel 1993 ; Harrel and Harrison 1994 ; Rutledge and Karim 1999). 즉, 대리인은 주인이 이용가능하지 않는 정보를 가지면 자신이 조직의 전반적인 이해와 일치하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주인이 검정할 수 없으므로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기 쉽다. 그러나 주인과 대리인이 동일한 정보 이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리인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설크 행위를 조세회피로 간주하고 있고, 조세회피는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매출수익의 과소신고로 정의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조세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에 대한 동기와 기회를 가져야 된다. 대리인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납세자는 자기이해 중심적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체감경기 하에서는 조세회피에 대한 동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⁴⁾

납세자의 조세회피 기회는 세원에 따라서 또는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세회피 기회는 조세회피 행위가 주인(정부)에게 발각되어 처벌될 가능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납세자(사업자)가 신용카드 거래나 세금계산서 발부 거래와 같이 국세청에서 추적가능한 거래 보다는 현금거래의 비중이 높을수록 회피기회가 높다고 볼 수 있다

3) 설크의 사전적인 뜻은 행해야 할 일이나 직무를 간과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세관계에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 즉, 조세회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 본 연구에서의 납세자들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올 해(2009년)의 경제성장률을 -1.5%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납세자(대리인)들은 조세회피 동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Blanthorne and Kaplan 2008).⁵⁾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도 조세회피에 따른 기대가치는 회피기회가 높은 납세자가 회피기회가 낮은 납세자 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조세회피기회는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직접적인 양(+)의 영향을 미친다.

2. 윤리변수의 영향

Noreen(1988)이 대리인의 의사결정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경제적 변수(대리인변수)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대리인의 윤리수준과 같은 윤리변수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이래로 회계 및 세무 분야의 의사결정행동에 대한 연구들에서 윤리변수가 이용되었다(Ponemon 1992 ; Flory et al. 1992 ; Tsui and Gul 1996, Rutledge and Karim 1999, Kaplan et al. 1997, Booth and Schulz 2004 ; Henderson and Kaplan 2005).

윤리변수는 크게 대리인의 개인적인 윤리의식과 개인이 속한 조직 또는 사회의 윤리규준을 포함한 윤리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가. 납세도의

대리인의 개인적인 윤리의식에 대한 측정은 일반적 윤리수준(*general ethical belief*)과 상황적 윤리수준(*contextual ethical belief*)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윤리수준은 특정한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윤리적 믿음이 아니라 대리인의 일반적인(전체적인) 윤리의식을 측정한다. 일반적 윤리수준을 행동예측에 이용하는 것은 심리학의 일치성 이론(*theory of consistency*)에 따른 것이다(Henderson and Kaplan 2005). 일치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행동을 일치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절대적인 도덕(*moral absolutes*)에 따라 윤리적 판단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주어진 상황이나 결과에 관계없이 항상 옳고 나쁨에 대한 판단에 의해 행동할 것이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을 위반하는 것이 나쁘다고 판단할 것이고 따라서 도적질이 나쁜 것이라 판단하는 만큼 쓰레기 무단 투기도 나쁜 것으로 판단한다. 일치성 이론에 따르면 이 사람은 그의 일반적 윤리의식에 따라 행동할 것이므로 도적질도 쓰레기 투기도 하지 않을 것이다. 조세회피도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적 윤리의식

5) Blanthorne and Kaplan(2008)은 납세자들 중 사업자(*Business ownership*)이며 현금수익이 일부 있는 경우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IRS에 보고되지 않는 현금수익이 있는 납세자를 회피기회가 있는 납세자로 보고, 나머지 모두를 회피기회가 없는 납세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부분 회피기회가 있는 납세자로 분류되고, 근로소득자들은 대부분 회피기회가 없는 납세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회피기회를 분류하므로 Blanthorne and Kaplan (2008)의 분류방법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 높은 사람은 조세회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일반적 윤리의식 변수는 납세자의 조세순응 행동을 예측하는 데 적용되어 왔다(Ghosh and Crain 1995 ; Kaplan et al 1997).

일반적 윤리수준은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상황적 윤리수준은 의사결정 상황에 구체화된 윤리의식을 나타낸다. 상황적 윤리의식을 행동예측 설명변수로 이용하게 된 근거는 개인들의 태도와 믿음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Lewis(1982)의 주장이다. 그의 주장을 앞의 예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개인들은 도적질 보다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더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 행위와 다른 범위한 상황과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개인들이 조세회피를 다른 범죄들과 달리 생각한다는 증거들이 있다. Song and Yarbrough(1978)는 납세자들이 범죄의 심각성에 있어서 조세회피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innocuous) 범죤인 자전거 훔친 범죄 보다 약간 더 심각한 것으로 분류한다고 보고하였다. Westat, Inc(1980)은 조세회피자와 순응자들은 도둑질에 대해서는 유사한 반감을 나타내지만, 세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반감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세회피 연구들(tax compliance research)에서 상황적 윤리수준이 처음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Grasmick and Green(1980) 연구이다. 그들은 국가가 부여하는 처벌과 같은 대가(state-imposed costs)뿐만 아니라 수치심, 당황스러움과 같은 자신이 부여한 대가(self-imposed costs)가 조세회피를 방지케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와 관련된 상황적 윤리의식을 납세도의로 표현한다. 조세회피 연구에 있어서 상황적 윤리의식인 납세도의가 이용된 연구들로서는 Kaplan and Reckers(1985), Grasmick et al.(1991), Reckers et al.(1994), Hanno and Violette(1996), 그리고 Wenzel(2004)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납세자의 일반적 윤리의식과 상황적 윤리의식 둘 다 조세회피 행위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황적 윤리의식인 납세도의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납세도의는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직접적인 음(-)의 영향을 미친다.

나. 윤리환경

개인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또는 사회에 소속되어 생활한다. 따라서 개인의 윤리적 행위는 조직 또는 사회의 윤리규준인 윤리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윤리적 환경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규범(social norms)인데, 사회적 규범은 어떤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이해되는 규칙과 기준들로서 법적 강제 없이 사회적 행동을 지도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Cialdini and Trost 1998).

강한 윤리적 환경은 조직이 운영되고 대리인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특정한 상황을 제공한다. 따라서 대리인들의 내재적 특징인 개인적 윤리수준과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다. 개인적 윤리수준과는 관계없이 강한 윤리적 환경은 대리인들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한다. 즉, 대리인

들이 대리인문제상황하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감소하도록 유도한다(Booth and Schulz 2004).

ICAC(1998)는 조직의 윤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식별했는데 그것들은 미션과 가치, 리더십과 경영진, 동료그룹, 윤리규정, 윤리훈련, 그리고 보상과 제재 등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윤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친구, 주위의 동종업체 동료, 거래처, 그리고 세무대리인 등을 들 수 있다.

가정에서는 납세자의 배우자와 가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배우자가 윤리적이면 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여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것 같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납세자가 주로 교류하는 친한 친구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세회피와 관련해서 더 현실적으로는 주위의 동종업체 동료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개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규범과 다를 지라도 집단적 규범을 따르기 쉽고 또한 개인으로서보다는 집단으로서 더 위험이 높은 의사결정을 하기가 쉬운데, 납세자는 동종업체 동료들이 대부분 조세회피를 한다면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규범과 다를 지라도 그에 동화되기 쉽다.⁶⁾

거래처들도 윤리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래처들은 정상적인 거래절차에 따르고 항상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처들이 현금지급과 거래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당한 할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ICAC(1998)에 따르면 조직에서 리더십과 경영진이 윤리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하위자들은 윤리방침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상위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른다. 조세회피의 관점에서 보면 세무대리인이 조직에서 리더십과 경영진이 윤리환경에 미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납세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격적인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에게 조세회피를 권유하는 경향이 있고, 보수적인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세무대리인들이 경쟁이 심화된 환경하에서 개업하고 있는 실정을 생각한다면 세무대리인들이 반드시 납세자들이 세법에 따라 또는 국세청의 방침에 따라 신고하도록 유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 윤리환경은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직접적인 음(-)의 영향을 미친다.

3. 대리인변수와 윤리환경 변수의 납세도덕을 통한 간접효과

심리학분야(Epley and Caruso 2004), 조직행동분야(Neale and Bazerman 1983 ; Thompson and Loewenstein 1992) 그리고 회계학분야(Kachelmeier and Towry 2002 ; Kaplan 2001 ; Luft and

6) 집단적 규범을 따르는 것을 집단사고효과(group-think effect)라 하고 집단으로서 더 위험이 높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위험선회집단효과(risk-shift group effect)라 한다(Booth and Schulz 2004).

Libby 1997)에서는 개인들이 윤리나 공정성에 대해 자기중심적 해석(egocentric interpretations)을 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세무분야의 조세회피 상황에서도 윤리의 자기중심적 해석 개념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자진신고 납부 체제하에서는 납세자들의 용인가능한 신고수준에 대해서 명확한 동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ompson and Loewenstein(1992)은 개인의 윤리적 해석은 자기중심적(self-serving)이라고 본다. 그들의 관점에 따르면 비윤리적이거나 문제성이 있는 행동으로 효익을 얻는 개인은 그러한 행동으로부터 효익을 얻을 수 없는 개인들만큼 그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조세회피(과소신고) 기회가 높은 납세자와 회피기회가 낮은 두 납세자가 있다고 할 때, 경제적 모형에 따르면 과소신고로 인한 기대가치는 회피기회가 높은 납세자가 회피기회가 낮은 납세자 보다 크다.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리적 모호성 존재하므로 납세자들은 과소신고에 대해 자기중심적으로 윤리적 믿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회피기회가 낮은 납세자는 과소신고로부터 효익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조세회피에 대한 윤리적 믿음의 형성에 있어 자기중심적일 이유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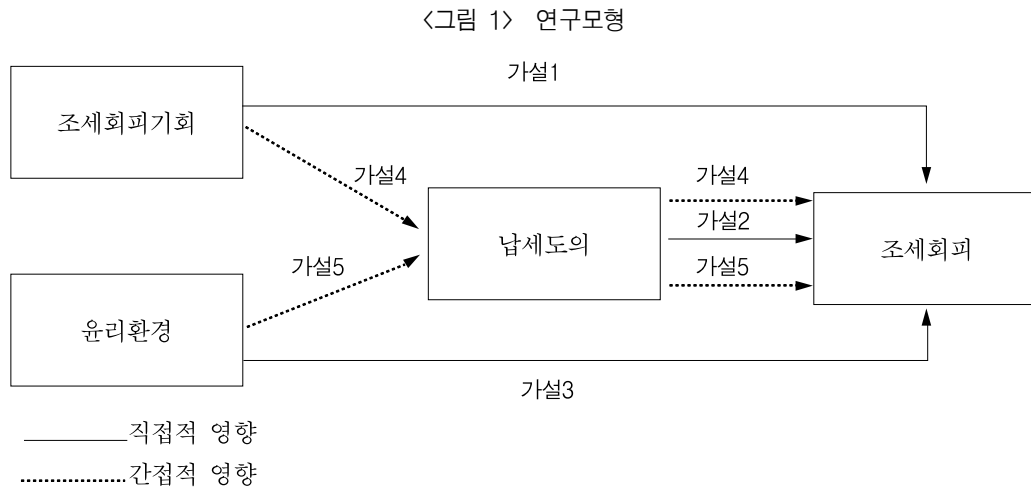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가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되길 원하는 경향이 있다(Bazerman et al. 2000). 자기중심적 해석은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높은 과소신고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즉, 조세회피(과소신고)는 비교적 비윤리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따라서 개인적 윤리의식이 과소신고에 대한 장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조세회피로부터의 경제적 효익은 납세자가 과소신고에 대해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윤리적 믿음을 형성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대리인변수인 조세회피기회가 납세자의 개인적인 윤리의식인 납세도의를 매개변수로 하여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4] 조세회피기회는 납세도의를 통해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직문화(윤리환경)는 윤리적인 사람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게 하거나 윤리적인 사람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잠재력을 가질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ICAC 2000)는 주장이 있다. 또한 Trevino(1986)는 윤리적 의사결정행동에는 개인적 윤리의식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문화(윤리환경)와 같은 상황변수들이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s)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고려한다면 윤리환경이 납세자의 개인적 윤리의식인 납세도의를 통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윤리환경은 조세회피기회와 마찬가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환경변수(외생변수)인데 반해 납세도의는 납세자의 내재변수이므로 조세회피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때 윤리환경은 납세도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5] 윤리환경은 납세도의를 통해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가설설정을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III. 연구의 설계

1. 표본추출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직접 납세자들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대상 납세자들은 부산지역의 여러 세무회계사무소들로부터 납세자 정보를 받아 무작위적으로 설문대상을 선정하였다. 설문대상납세자들은 모두 사업자들로서 근로소득자들은 제외되었다.⁷⁾

설문지는 설문대상자의 인구통계적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윤리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납세도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조세회피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업현황과 관련된 질문에는 사업형태, 사업분류, 업종, 사업자(일반고객)와의 거래비중, 현금수익비중,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부 비중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납세자의 조세회피기회를 파악하는데 이용되었다.

설문지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설문회수협조자 등을 통해서 회수되었는데, 총 250부가 배포되어 그중 149부가 회수되었다. 그러나 그중 6부는 설문내용이 부실하여 제외하였다. 따라서 분

7) 근로소득 납세자들은 세원의 노출이 너무 투명하여 조세회피와 관련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석대상 납세자는 143명이 되었다. 연구대상 납세자의 사업상 특성은 <표 1>과 같고,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1> 응답자의 사업의 특성

업 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합 계
표본수	110		33		143
사업 형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합 계
표본수	113	8	22		143
세법상 사업 형태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합 계
표본수	29	39	68	7	143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성 별	남			여			합 계
표본수	98			44			142
나 이	3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 계
표본수	12	34	52	33	10		141
학 력	고졸 이하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합 계
표본수	24	34	69	15			142
연간소득	4천 이하	4천-6천	6천-8천	8천-1억	1억 이상		합 계
표본수	58	29	14	10	31		142

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조세회피는 간단 명료화를 위해 매출수익 과소신고로 정의했다. 구체적인 측정 은 과소신고한 빈도(경험)와 과소신고 크기(정도)로 이원화 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각각이 종속변수의 역할을 한다.

과소신고 빈도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실제 매출수익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적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전혀 없음(1)’에서 ‘항상 과소신고(7)’를 양 극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따라서 측정된 값이 높을수록 조세회피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1	2	3	4	5	6	7
.....						
전혀 없음						항상 과소신고

과소신고 크기는 2008년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실제 매출수익의 어느 정도를 신고하였는지 질문하고, ‘전부 신고함(1)’과 ‘전혀 신고하지 않음(7)’을 양 극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따라서 값이 높을수록 조세회피가 큰 것을 의미한다.

1	2	3	4	5	6	7
.....						
전부 신고함						전혀 신고하지 않음

3. 독립변수

가. 대리인변수

대리인이론에서는 설크할 유인과 설크할 기회가 있을 때 대리인들은 역기능적선택상황에 직면한다고 하는데, 최근과 같은 감속경제하에서 납세자들이 설크할 유인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가정할 때 설크할 기회를 대리인변수로 설정할 수 있다. 자진신고납부 상황하에서는 설크할 기회(조세회피기회)는 조세회피가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를 매출수익의 과소신고로 보았는데, 법인기업은 회계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기업에 비해 특히 외형, 즉 매출수익을 줄이는 조세회피가 어렵다. 이에 반해 개인기업들은 기준경비율을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형을 줄이는 조세회피를 행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법인기업은 기본적으로 회피기회가 적은 쪽으로, 개인기업은 회피기회가 많은 쪽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개인기업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일반사업자에 비해 외형을 줄이는 조세회피를 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회피기회가 낮은 쪽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사업자가 매출수익을 누락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만 감소시키므로 조세회피에 따른 기대효익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다.⁸⁾

Blanthorne and Kaplan(2008)은 매출신고의 과소신고는 증빙이 남지 않는 현금거래일 경우 회피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일반사업자 중 100% 무현금거래로만 이루어진 경우, 거래가 일반고객이 아닌 사업자와의 거래로만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현금거래가 있더라도 현금거래 중 100%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회피기회가 낮은 쪽으로 분류했다.⁹⁾ 조세회피기회에 따른 납세자의 구분은 <표 3>과 같고, 대리인변수는 회피기회가 큰

8)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교부가 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에 따른 Cross Check 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사업자에 비해 회피기회가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들에는 개인의원과 학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개인의원의 경우에는 수익금액이 공단급여 대상 노출과 함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이중 노출되고, 요즘 학원들도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우려는 감소될 수 있다.

납세자와 회피기회가 적은 납세자로 이분화 하여 측정하였다.

회피기회가 큰 경우(역기능적선택상황인 경우) = 1
회피기회가 적은 경우(역기능적선택상황이 아닌 경우)=0

〈표 3〉 조세회피기회에 따른 납세자의 구분

역기능적선택상황이 아닌 납세자(83)					역기능적선택상황 납세자(60)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	사업자거래	무현금거래	100%증빙		간이사업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음영부분은 조세회피기회가 적은 상황의 납세자를 나타냄.

나. 납세도의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 믿음은 일반적 윤리와 상황적 윤리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상황적 믿음이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본 연구에서 납세도의는 Blanthorne and Kaplan(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표 4>와 같이 4가지 항목 각각에 대해 납세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표 4〉 납세도의 측정항목

1) 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매출수익의 일부를 누락하더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매출수익의 일부를 누락하는 것은 나의 삶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매출수익의 일부를 누락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4) 부가가치세 신고나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매출수익의 일부를 누락하는 것은 부정직한 일이다.

* 1)과 3) 항목은 분석을 위해 7은 1로, 1은 7과 같이 스के일(scale)을 반대로 하여 코딩(coding)하였음.

- 9)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가 일반고객인 경우보다 조세회피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것이고, 따라서 증빙이 남게 되기 때문이다.
- 10) Henderson and Kaplan(2005)은 일반적 윤리믿음을 윤리적 경향(ethical orientation)이라 하고, 상황적 윤리믿음을 윤리적 판단(ethical evaluation)이라 표현하는데, 납세자의 조세순응 행위에는 윤리적 판단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윤리적 경향은 윤리적 판단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납세자들은 질문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와 “명확히 그렇다(7)”를 양 극단으로 한 7점 척도하에서 답을 하게 되는데, 값이 높을수록 납세도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 윤리환경

본 연구에서는 윤리환경은 조세회피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납세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윤리환경 측정항목은 Blanthorne and Kaplan(2008)의 연구를 참조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측정항목에는 세무대리인을 추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납세자인 사업자들은 모두 세무대리인을 통해 자진신고하고, 그 신고에는 세무대리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무대리인은 그 성향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적인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에게 조세회피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보수적인 세무대리인은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Ford and Richardson(1994)은 윤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동료 집단을 들고 있는 데, 개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규범과 다를 지라도 집단적 규범을 따른다고 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에게는 주위의 같은 업종 사업체 동료들이 윤리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래처 또한 윤리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처는 현금지급을 조건으로 큰 할인을 요구하여 조세회피를 조장할 수가 있다. 자주 접하는 일반 친구나 배우자의 윤리의식도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녀와 같은 가족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자녀가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 유발되는 것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윤리환경에 대한 측정은 <표 5>와 같이 6가지 항목 각각이 과소신고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답으로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값이 높을수록 윤리환경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표 5> 윤리환경의 측정항목

구 분	확실히 과소신고 유도	과소신고 유도	과소신고 조금유도	보통임	과소신고 조금억제	과소신고 억제	확실히 과소신고 억제
1) 세무대리인(세무회계사무소)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 주위의 같은 업종 사업체 동료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거래처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나의 친구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5) 나의 배우자(아내 또는 남편)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6) 나의 가족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IV. 연구결과 및 토론

1. 연구설계의 타당성 점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문항 척도들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6개의 윤리환경 측정항목과 4개의 납세도의 측정변수를 대상으로 주성분 배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측정항목들이 2개의 요인으로 잘 분류되었다. 따라서 구성의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하겠다. 또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Cronbach's α Test를 한 결과 윤리환경에 대한 $\alpha = 0.880$, 납세도의에 대한 $\alpha = 0.802$ 로서 일반적인 신뢰성 기준인 0.6을 초과하므로 독립변수 측정에 대한 내적타당성도 유지된다. 본 연구에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는 <표 7>과 같다.

<표 6> 요인분석결과

항 목	성 분	
	1	2
1(윤리환경)	0.617	0.233
2(윤리환경)	0.792	-0.081
3(윤리환경)	0.806	0.031
4(윤리환경)	0.862	0.068
5(윤리환경)	0.830	0.146
6(윤리환경)	0.818	0.131
7(납세도의)	0.159	0.749
8(납세도의)	-0.006	0.818
9(납세도의)	0.105	0.782
10(납세도의)	0.064	0.798
아이겐 값	4.073	2.310
분산의 비율(%)	40.734	23.104

<표 7> 연구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

항 목	n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조세회피기회	143	0	1	0.58	0.495
윤리환경	143	1	7	4.17	1.187
납세도의	143	1.75	7	4.54	1.206
조세회피-빈도	143	1	7	3.06	1.876
조세회피-크기	143	1	7	2.39	1.579

2. 연구결과

가.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기초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행하였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수인 조세회피기회, 윤리환경 그리고 납세도의와 종속변수인 조세회피 변수간의 상관관계 부호는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고,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련성이 모두 1%수준에서 유의적이다. 독립변수들간의 관계는 5% 또는 1% 수준에서 유의적이지만, 계수의 크기로 판단할 때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변수들의 상관관계

	X1	X2	X3	X4
조세회피기회(X1)				
윤리환경(X2)	-0.200**			
납세도의(X3)	-0.279***	0.204**		
조세회피-빈도(X4)	0.467***	-0.323***	-0.463***	
조세회피-크기(X5)	0.464***	-0.278***	-0.428***	0.825***

** : $p < 0.05$, *** : $p < 0.01$

나. 가설1, 가설2, 가설3의 검정

가설1, 가설2, 가설3의 검정결과가 <표 9>에 나타나 있다. 가설1은 회피기회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가설인데, 조세회피를 빈도 및 크기로 파악한 경우 모두 회피기회가 1%수준 하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역기능적상황하에 있는 납세자의 조세회피와 역기능적상황이 아닌 경우 납세자의 조세회피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10>에 따르면 역기능적상황하에서 납세자의 조세회피가 역기능적선택상황이 아닌 경우 보다 유의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p=0.000$). 따라서 가설1은 지지된다.

가설2는 납세도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가설이다. <표 9>에 따르면 납세도의가 높을수록 납세자들의 조세회피가 감소한다. 구체적으로는 빈도로 파악한 조세회피와 크기로 파악한 조세회피 모두 1%수준 하에서 유의적이다($p=0.000$). 따라서 가설2는 지지된다. 즉, 납세자의 납세도의가 높을수록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동이 감소한다.

윤리환경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가설3은 빈도로 파악한 조세회피에 있어서는 1%수준 하에서 유의적이고, 크기로 파악한 조세회피에 있어서는 5%수준 하에서 각각

유의적이다($p=0.008$, $p=0.043$). 또한 나타난 결과는 두 경우 모두 가설방향과 일치한다. 즉, 납세자의 윤리환경이 강할수록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는 감소한다. 따라서 가설3은 지지된다.

〈표 9〉 조세회피기회, 윤리환경, 납세도의의 영향(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조세회피기회 (+)	윤리환경 (-)	납세도의 (-)	R ² F (p값)
조세회피-빈도	β	1.279	-0.297	-0.513	0.371
	t	4.767	-2.707	-4.657	27.374
	p값	(0.000)***	(0.008)***	(0.000)***	(0.000)***
조세회피-크기	β	1.119	-0.195	-0.393	0.318
	t	4.804	-2.045	-4.106	23.020
	p값	(0.000)***	(0.043)**	(0.000)***	(0.000)***

** : $p<0.05$, *** : $p<0.01$

〈표 10〉 역기능적 상황 여부에 따른 조세회피 차이 비교(t-검정)

대리인변수	역기능적상황임		역기능적상황아님		t 값 (p값)	예상부호
	평 균	n	평 균	n		
조세회피-빈도	4.08	60	2.31	83	6.277 (0.000)***	+
조세회피-크기	3.25	60	1.77	83	6.217 (0.000)***	+

*** : $p<0.01$

다. 가설4, 가설 5의 검정

가설4와 가설5는 회피기회 및 윤리환경이 납세도의를 통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두 가설에 대한 검정은 납세도의가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변수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피기회와 윤리환경이 납세도의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을 파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두 변수가 각각 납세도의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면 납세도의가 매개변수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11>에 따르면 회피기회와 윤리환경은 각각 납세도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회피기회 $p=0.001$; 윤리환경 $p=0.014$).

〈표 11〉 대리인변수 및 윤리환경의 납세도의에 대한 영향

종속변수 \ 독립변수		조세회피기회 (+)	R ² F (p값)	윤리환경 (+)	R ² F (p값)
납세도의	β	0.279	0.078	0.204	0.042
	t	3.444	11.859	2.477	6.136
	p값	(0.001)***	(0.001)***	(0.014)**	(0.014)**

** : p<0.05, *** : p<0.01

납세도의의 매개변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Baron and Kenny(1986)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Baron and Kenny(1986)에 따르면 매개변수의 매개영향이 유의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2가지 회귀식이 필요하다.

$$Y = a_1 + b_1 \cdot X \quad \text{①}$$

$$Y = a_1 + b_1 \cdot X + b_2 \cdot Z \quad \text{②}$$

Y : 조세회피, a_1 : 상수항, b : 표준화 회귀계수, X : 회피기회 또는 윤리환경(독립변수)

Z : 납세도의(매개변수)

Baron and Kenny(1986)에 따르면 매개변수의 영향이 유의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회귀식 ①에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b_1 이 유의적이어야 한다. 둘째 회귀식 ②에서 매개변수(납세도의)의 회귀계수 b_2 가 유의적이어야 한다. 셋째 회귀식 ②의 R^2 값이 회귀식 ①의 R^2 값보다 커야 한다. 넷째 회귀식 ②에서 b_1 의 값은 회귀식 ①의 b_1 값 보다 작거나 유의성이 없어야 한다.

대리인변수와 윤리환경이 납세도의를 통해 조세회피에 미치는 간접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매개회귀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가 <표 12>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는 대리인변수가 납세도의를 통해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4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도의의 매개변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표 12>에 따르면, 첫 번째 회귀식($Y = a_1 + b_1 \cdot X$)에서 회피기회는 조세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0.47과 0.46이다. 그러나 매개변수인 납세도의가 들어간 두 번째 회귀식($Y = a_1 + b_1 \cdot X + b_2 \cdot Z$)에서 회피기회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각각 0.37과 0.37로 회귀계수가 감소하였다. 또한 조세회피에 대한 납세도의의 영향이 유의적이며, 수정 R^2 도 0.21에서 0.34로, 0.21에서 0.30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그러나 회피기회 계수의 유의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때 조세회피에 대한 납세도의의 매개영향은 일부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따라서 가설4는 일

11) 납세도의의 매개변수 효과가 분명하기 위해서는 대리인변수의 표준화된 계수 값의 감소뿐만 아니라

부 지지된다고 하겠다.

<표 13>은 윤리환경이 납세도의를 통해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5를 검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도의의 매개변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나타난 결과는 회피회피의 경우와 유사하다. 즉, 조세회피에 대한 윤리환경의 영향만을 분석하였을 때에 비해 매개변수인 납세도의가 함께 들어간 다중회귀 분석에서 윤리환경의 회귀계수의 절대치가 감소하고¹²⁾ 유의성도 일부 감소하였다(조세회피-크기의 경우 윤리환경의 유의성이 1%수준에서 5%수준으로 감소함). 또한 납세도의의 조세회피에 대한 영향이 유의적이며, 수정 R²도 0.10에서 0.31로, 0.08에서 0.21로 각각 증가하였다. 따라서 납세도의의 매개변수 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5는 일부 지지된다.

<표 12> 납세도의의 매개영향 분석(대리인변수)

종속변수	Y=a ₁ +b ₁ ·X ①			매개변수	Y=a ₁ +b ₁ ·X+b ₂ ·Z ②		
		b ₁	수정R ²		b ₁	b ₂	수정R ²
조세회피 (빈도)	대리인변수(X)	0.47***	0.21	납세도의(Z)	0.36***	-0.36***	0.34
조세회피 (크기)	대리인변수(X)	0.46***	0.21	납세도의(Z)	0.37***	-0.32***	0.30

*** : p<0.01

<표 13> 납세도의의 매개영향 분석(윤리환경)

종속변수	Y=a ₁ +b ₁ ·X ①			매개변수	Y=a ₁ +b ₁ ·X+b ₂ ·Z ②		
		b ₁	수정R ²		b ₁	b ₂	수정R ²
조세회피 (빈도)	윤리 환경(X)	-0.32***	0.10	납세도의(Z)	-0.23***	0.41***	0.31
조세회피 (크기)	윤리 환경(X)	-0.27***	0.08	납세도의(Z)	-0.19**	0.38***	0.21

** : p<0.05, *** : p<0.01

유의성이 크게 감소하여야 한다.

- 1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음의 관계인 경우에는 회귀계수의 크기의 변화는 절대치를 비교하여야 한다.

3.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변수(조세회피기회)의 정의에서 역기능적선택상황하에 있는 납세자들을 분류할 때 법인사업자들을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법인사업자들은 회계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 거래증빙이 잘 관리되고, 또한 외부감사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의 주목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조세회피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도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류가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조세회피 행위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표 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조세회피 행위의 차이가 유의적이다($p=0.004$; $p=0.002$). 따라서 분류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사업형태에 따른 조세회피 차이 비교(t-검정)

종속변수 \ 사업형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t 값 (p값)
	평 균	n	평 균	n	
조세회피-빈도	3.30	110	2.24	33	2.915 (0.004)***
조세회피-크기	2.61	110	1.67	33	3.097 (0.002)***

*** : $p<0.01$

개인사업자들은 역기능적선택상황하의 납세자들로 분류되지만, 그중 면세사업자는 과소신고의 기대효익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전제하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세법상 사업의 분류 형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그리고 면세사업자들의 사후적인 조세회피 행위 차이를 조사해 본 결과 <표 15>에서 나타나 있듯이 면세사업자의 조세회피 행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5> 세법상 사업 분류별 조세회피 행위

종속변수 \ 사업분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 체	
	평 균	n	평 균	n	평 균	n	평 균	n
조세회피-빈도	3.12	113	4.13	8	2.31	22	3.06	143
조세회피-크기	2.41	113	3.50	8	1.91	22	2.39	143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측정은 7점척도로 행해졌는데, 전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응답한 것 같다(조세회피-빈도 전체평균은 3.06 ; 조세회피-크기 전체평균은 2.39). 특히 크기로 측정한 조세회피는 2008년도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실제 매출세액의 어느 정도를 신고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설문자의 정보가 비공개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에는 최근 자료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충분한 표본수 등을 고려할 때 연구결과의 해석에는 큰 무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1의 검정결과에 따르면 대리인변수는 조세회피 행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기회가 높아 역기능적선택상황하에 있을 때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조세회피기회는 특히 증빙이 남지 않는 현금거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금거래영수증 제도는 조세회피기회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18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 거래를 한 소비자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사용내역을 조회 뒤 현금 거래 내역이 빠졌거나 실제 낸 금액에 비해 적게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서나 영수증, 견적서,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사업자의 과소·누락 신고의 기회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¹³⁾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자중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조세회피 행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조세회피-빈도 4.13 ; 조세회피-크기 3.50). 그 이유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과 같이 비교적 느슨한 세원관리가 이뤄짐으로 인해 조세회피기회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과 같은 소득표준율제도가 조세회피기회의 관점에서는 개선 내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설2의 검정결과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납세도위가 조세회피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윤리의식보다는 상황적 윤리의식(contextual ethical belief)이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Henderson and Kaplan(2005)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조세의무 이행 상황에 따른 윤리의식인 납세도위가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세청에서는 여러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국민들의 납세도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학교교육에서도 세법이나 세무회계와 같은 교과과정에서 구체적인 세무신고 상황하에서의 사례분석을 통해 윤리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설3의 검정결과에 따르면 윤리환경이 조세회피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위 동종업종 동료, 친구, 가족 등과 함께 세무대리인을 윤리환경에 포함시켰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근에 세무대리인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세무대리인이 늘

13) 18개 적용 대상사업자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등이다.

어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문가 윤리의식 제고 또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가설4와 가설5는 대리인변수와 윤리환경이 납세도의회를 통해 조세회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만일 그러한 영향이 중요하다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대리인변수와 윤리환경을 통제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또한 대리인변수와 윤리환경은 납세자 입장에서 외생변수인 반면 납세도의회는 자신의 내재변수이므로 조세회피 행동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도의회 매개변수 효과는 큰 의의를 가진다. 나타난 결과는 대리인변수와 윤리환경이 납세도의회를 통해 조세행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조세회피 기회 축소와 윤리환경 개선이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감소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대리인변수를 사례상황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는데 반해 실제적인 상황변수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또한 윤리환경의 측정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결과의 외적타당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V.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대리인변수(회피기회), 윤리환경, 그리고 납세도의회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부산지역에 있는 사업자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가 지역성을 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경제와 납세자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상황으로 확대해석하는데 큰 무리성은 없어 보인다.

대리인변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기회(대리인변수)가 적은 납세자와 큰 납세자로 분류하였다. 즉, 조세회피기회가 적은 납세자에는 법인사업자, 개인기업 중 면세사업자, 거래상대방이 100% 사업자인 납세자, 거래가 100% 무현금거래인 납세자, 현금거래의 100%가 증빙이 있는 납세자를 포함하였고, 조세회피기회가 많은 납세자에는 간이사업자를 포함한 나머지 개인사업자들을 포함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조세회피기회가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리환경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Blanthorne and Kaplan(2008)에서 정의한 사회적 규범 항목을 참고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여 윤리환경을 측정하였다. 특히 측정항목에는 세무대

리인을 추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납세자인 사업자들은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자진신고하고, 그 신고에는 세무대리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윤리환경은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리인의 개인적인 윤리의식에 대한 측정은 일반적 윤리수준과 상황적 윤리수준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그 중 상황적 윤리수준은 대리인의 의사결정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세무신고시의 상황적 윤리수준(납세도의)을 측정하고, 그것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납세도이는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회피기회와 윤리환경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외생변수인데 반해 납세도이는 납세자의 내생변수이므로 조세회피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세회피기회와 윤리환경이 납세도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조세회피기회와 윤리환경은 납세도이를 통해 조세회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납세도이의 매개변수 효과를 분석한 바, 매개변수 효과가 일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조세당국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조세회피기회를 축소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납세자의 납세도의 함양과 납세자를 둘러싼 조세환경의 선진화에 힘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2.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를 수익 과소신고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조세회피에는 가공비용과 같은 비용과대 계상이 있을 수 있는 바,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직접적으로 측정했는데, 이는 응답자 자신에 대한 윤리적인 질문이라 자신의 실제 행동에 관계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례기술을 통해 조세회피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윤리환경에는 보상(rewards)과 처벌(sanctions)이 영향을 미친다(Booth and Schultz 2004). 이러한 점에서 관할세무서에서는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몇 년간 세무조사를 제외시켜 주거나, 세금 탈루 납세자에 대해서 형사고발 위협을 하는 등 윤리환경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처벌에 있어서는 사적인 처벌보다는 명단공개와 같은 사회적 또는 공적인 처벌이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윤리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낸다.¹⁴⁾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윤리환경에 관할세무서를 포함시키면 더 좋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4) 최근에 국세청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해 유명학원 스타 강사, 고소득 변호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예고와 같이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러한 메시지는 해당 납세자의 윤리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변수에서 조세회피기회(역기능적선택상황) 여부를 분류하는데 있어 기업형태, 세법상 사업분류, 현금거래 유무 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류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18개 업종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듯이 조세회피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그 외의 업종으로 분류해 분석하면 유의한 연구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납세도의회의 매개변수 효과를 더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과 같은 구조화 방정식 모형분석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lm, J., G. McClelland, and W. Schultze. 1999. Changing social norms of tax compliance by voting. *KRYLOS* 52 (2) : 141 – 171.
- Antonides, G., and H. Robben. 1995. True positives and false alarms in the detection of tax evas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6 (4) : 617 – 640.
- Babcock, L., G. Loewenstein, S. Issacharoff, and C. Camerer. 1995. Biased judgements of fairness in bargaining. *American Economic Review* 85(5) : 1337 – 1343.
- Baiman, S. 1982. Agency theory in managerial accounting : a survey.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 : 154 – 213.
- _____, 1990. Agency theory in managerial accounting : a second look.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15 : 341 – 371.
- Baron, R., and D. Kenny.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6) : 1173 – 1182.
- Bazerman, M., J. Curhan, D. Moore, and K. Valley. 2000. Negoti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 279 – 314.
- Blanthorne, C., and S. Kaplan. 2008. An egocentric model of the relations among the opportunity to underreport, social norms, ethical beliefs, and underreporting behavior.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33 : 684 – 703.
- Booth, B., and A. Schulz. 2004. The impact of an ethical environment on managers' project evaluation judgments under agency problem conditions. *Accounting , Organization and Society* 29 : 473 – 488.
- Carnes, G., and T. Englebrecht. 1995.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detection risk perceptions, penalty sanctions and income visibility on tax complianc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7 (1) : 26 – 41.
- Cialdini, R., and M. Trost. 1998. *Social influence : Social norms, conformity, and compliance*.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New w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Eisenhardt, K. 1989. Agency theory : an assesment and review.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 : 57 – 74.
- Epley, B., and E. Caruso. 2004. Egocentric ethics. *Social Justice Research* 17 (2) : 171 – 187.
- Flory, S., T. Phillips, E. Reidenbach, and D. Robin. 1992.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elected etical issues in accounting. *The Accounting Review* 67 : 284 – 302.
- Ford, R., and W. Richardson. 1994. Ethical decision making :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3 : 205 – 221.
- Ghosh, D., and T. Crain. 1996.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ethical standards and perceived

- probability of audit on intentional noncompliance. *Behavioral Research in Accounting* 8 : 219 – 244.
- Grasmic, H., and D. Green. 1980. Legal punishment, social disapproval, and internalization as inhibitors of illegal behavior.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1 (3) : 325 – 335.
- _____, and J. Cochran. 1991. Render unto Caesar what is Caesar's : Religiosity and taxpayers' inclinations to cheat. *The Sociological Quarterly* 32 : 251 – 265.
- Hanno, D., and G. Violette. 1996. An analysis of moral and social influence on taxpayer behavior. *Behavioral Research in Accounting* 8 : 57 – 79.
- Harrison, P., and A. Harrell. 1993. The impact of adverse selection on managers' project evaluation decis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6 : 635 – 643.
- Harrell, A., and P. Harrison. 1994. An incentive to shirk, privately – held information and managers' project evaluation decisions.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19 : 569 – 577.
- Henderson, B., and S. Kaplan. 2005. An examination of the role of ethics in tax compliance decision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7 (1) : 39 – 72.
-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1998. *Ethics : the Key to Good Management(ICAC Report)*. Sydney, Australia.
-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2000. What is an Ethical Culture? : Key Issues to Building an Ethical Organization. *ICAC Report*. Sydney, Australia.
- Internal Revenue Service. 2006. *IRS updates tax gap estimates*. IR – 2006 – 28, February.
- Jackson, B., and V. Milliron. 1986.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5 : 125 – 165.
- Kaplan, S., and P. Reckers. 1985. A study of tax evasion judgements. *National Tax Journal* 38 : 97 – 102.
- _____, K. Newberry, and P. Reckers. 1997. The effect of moral reasoning and educational communications on tax evasion intentions.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 : 38 – 54.
- Lewis, A. 1982. *The Psychology of Taxation*. New York, NY : Saint Martin's Press.
- Luft, J., and R. Libby. 1997. Profit comparisons, market prices and managers' judgements about negotiated transfer prices. *Accounting Review* 72 (2) : 217 – 229.
- Neale, M., and M. Bazerman. 1983. The role of perspective – taking ability in negotiating under different forms of arbitration.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36 (3) : 378 – 389.
- Noreen, E. 1988. The economics of ethics : a new perspective on agency theory.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13 : 359 – 370.
- Ponemon, L. 1992, Auditor underreporting of time and moral reasoning : An experimental lab study,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9 : 171 – 189.

- Reckers, P., D. Sanders, and S. Roark. 1994. The influence of ethical attitudes on taxpayer compliance. *National Tax Journal* 47 : 825 – 836.
- Rutledge, R., and K. Karim. 1999. The influence of self – interest and ethical considerations on managers' evaluation judgements.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24 : 173 – 184.
- Smith, K. W. 1990. Integrating three perspectives on noncomplianc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7 (3) : 350 – 369.
- Thompson, L., and G. Loewenstein. 1992. Egocentric interpretations of fairness and interpersonal conflic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1 : 176 – 197.
- Trevino, L. 1986. Ethical decision making in organizations : a person – situation interactionist mode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 : 601 – 617.
- Tsui, J., and F. Gul. 1996. Auditors' behavior in a audit conflict situation : a research note on the role of locus of control and ethical reasoning.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21 : 41 – 51.
- Wenzel, M. 2004. An analysis of norm processes in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5 : 213.
- _____. 2005a. Motivation or rationalization? Causal relations between ethics, norms, and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6 : 491 – 508.
- _____. 2005b. Misperceptions of social norms about tax compliance : from theory to intervent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6 : 862 – 883.
- Westat, Inc. 1980. *A research design for the study of individual income tax compliance*. Prepared for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The Effects of Opportunity to Evade, Ethical Environment and Contextual Ethical Belief on the Tax Evasion

Jae-Eul Jung*

— <Abstract> —

Korea national tax system has been characterized as a voluntary reporting system and the costs of noncompliance with national tax laws are recognized as sizable. And it is known that tax evasion is high on some kinds of businesses and tax resources than others. Previous research has found that the tax evasion occurs to a greater extent when the opportunity to evade is high. The importance of opportunity is grounded in economic model(agency theory). Under the economic model, opportunity to evade(agency variable) is a proxy for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Consistent with the economic model, evas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opportunity. But since Noreen(1988) insisted that economic model provides only a partial understanding and ethical beliefs play a role, researchers have included ethical variables to explain tax evasion behaviors. According the research trends, this study analyzed tax evasion behaviors using agency variable and ethical variables(ethical environments and individual ethical belief in the context of tax compliance). Recent research has found that high opportunity taxpayers, who are able to personally benefit from tax evasion judge tax evasion as less unethical than low opportunity taxpayers. This means taxpayer's individual ethical belief is influenced with agency variable. Considering the study's result and possible ethical environments' influence on individual ethical belief, this study also analyzed mediating variable effects of individual ethical belie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gency variable, ethical environments, and individual ethical belief has direct effects on the noncompliance of taxpayers and mediating variable effects of individual ethical belief are partially evident. The result of this study has implications on the tax policy of the governments and expect to contribute future studies analyzing tax evasion behaviors.

<Key words> Tax evasion, Opportunity to evade, Ethical environments, Ethical belief in the context of tax complianc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axation & Accounting, Silla University

〈부 록〉 본 연구의 설문지

※ 다음은 인구통계적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해 주세요.

- | | | | | | |
|-----------------|----------|---------|---------|--------------|----------|
| 1. 귀하의 실제상 나이는? | ① 30대 이하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대 이상 |
| 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 ② 여 | | | |
| 3. 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 이하 | ② 전문대 | ③ 대학교 | ④ 대학원(석사 이상) | |
| 4. 귀하의 연간소득은? | ① 4천 이하 | ② 4천-6천 | ③ 6천-8천 | ④ 8천-1억 | ⑤ 1억 이상 |

I. 다음은 귀하의 사업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또는 기록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사업 형태는?

- ① 개인사업자 ② 법인 사업자

2. 세법상 귀하 사업의 분류 형태는?

- ① 일반과세자 ② 간이과세자 ③ 면세사업자

3. 귀하 사업의 업종은? (기타인 경우 해당 업종 명기)

- ① 제조업 ② 도소매업 ③ 서비스업 ④ 건설업 ⑤ 기타_____

4. 총 매출수익 중 사업자와의 거래비중은? (가장 근사한 값에 동그라미 하시오)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5. 총 매출수익 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고객과의 거래비중은? (가장 가까운 값에 동그라미 하시오)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6. 총 매출수익 중 현금수익의 비중은? (가장 가까운 값에 동그라미 하시오)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7. 현금수익 중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부 비중은? (가장 가까운 값에 동그라미 하시오)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II. 다음의 항목들이 귀하가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실제 매출수익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 할지 안할 지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①에 가까울수록 과소신고를 유도하는데 가깝고, ⑦에 가까울수록 과소신고를 억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①과 ⑦사이의 숫자 중의 하나에 동그라미 해 주십시오)

구 분	확실히 과소신고 유도	과소 신고 유도	과소신고 조금유도	보통임	과소신고 조금 억제	과소신고 억제	확실히 과소신고 억제
1) 세무대리인(세무회계사무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주위의 같은 업종 사업체 동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거래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의 친구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의 배우자(아내 또는 남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I. 귀하는 다음 항목들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쪽에 가까울수록 '전혀 그렇지 않다'에 가깝고, ⑦쪽에 가까울수록 '명확히 그렇다'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①과 ⑦사이의 숫자 중의 하나에 동그라미 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임	조금 그렇다	그렇다	명확히 그렇다
1) 나는 부가가치세나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매출수익의 일부를 누락하더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매출수익의 일부를 누락하는 것은 나의 삶의 원칙에 위배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매출수익의 일부를 누락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부가가치세 신고나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매출수익의 일부를 누락하는 것은 부정직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 귀하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실제 매출수익보다 적게 신고(과소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1쪽에 가까울수록 ‘전혀 없음’에 가깝고, 7쪽에 가까울수록 ‘항상 과소신고’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1과 7사이의 숫자 중의 하나에 동그라미 해 주십시오).

1	2	3	4	5	6	7
.....						
전혀 없음						항상 과소신고

귀하는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실제 매출수익의 어느 정도를 신고하였다고 생각됩니까? (1쪽에 가까울수록 ‘전부 신고함’에 가깝고, 7쪽에 가까울수록 ‘전혀 신고하지 않음’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1과 7사이의 숫자 중의 하나에 동그라미 해 주십시오).

1	2	3	4	5	6	7
.....						
전혀 신고함						전혀 신고하지 않음